

다함교회 주간묵상집

솔로몬의 연설

— 형식의 성전에서 삶의 성전으로 —

주일설교 본문: 열왕기상 8장 12-21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5분 묵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다함교회 · 2026년 9월

묵상집 사용 안내

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시작 전에 짧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2. 그날의 본문을 두 번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번은 눈으로, 한 번은 소리 내어 읽습니다.
3. 묵상 글을 읽은 후, 묵상 질문에 자신의 답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4. 기도 제안을 따라 기도로 마치고, '오늘의 한 걸음'을 하루 중에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간의 여정: 주일에 들은 말씀을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 건넵니다. 월-화요일은 하나님의 크심과 허용의 경륜을, 수-목요일은 형식주의와 '내가'의 위험을, 금-토요일은 회복의 언약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월요일 —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12, 27)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성의 순간, 하나님은 눈부신 빛이 아니라 짙은 구름과 흑암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작품 안에서도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고, 내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기도 중에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오늘 하루, 내 계획과 이해의 틀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경륜 안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묵상 질문

1.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이해와 계획 안에 가두려 한 적이 없습니까?
2.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면 지금 나의 가장 큰 걱정은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할 크신 하나님, 저의 작은 틀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기도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1분간 묵상해 봅시다.

화요일 —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경륜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8:7; 열왕기상8:16)

왕정도 성전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스러운 열망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직접 세워보고 직접 무너져보지 않고는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해서 얻었지만 결국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해 준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참 왕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실패의 이력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의 이력서로 다시 쓰입니다.

묵상 질문

1. 내가 고집해서 얻었으나 결국 한계를 배우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그 경험은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원망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

저의 고집조차 당신의 경륜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난 실패를 원망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기록으로 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과거의 실패 하나를 떠올리고, 그 일을 통해 배운 은혜 한 가지를 노트에 적어 봅시다.

수요일 —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여호와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4, 9-11)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은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삶에서는 도둑질과 압제를 일삼으면서도 성전 뜰에만 서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되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그 거짓 안전감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과 가치관을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현대판 '성전 주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성수를 한다, 십일조를 한다, 직분을 맡았다.' 이 고백들이 순종의 열매라면 아름답지만, 삶의 불순종을 덮는 부적이 된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평생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묵상 질문

1. 나에게 '부적'이 되어버린 종교적 형식은 없습니까?
2.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형식보다 먼저 보고 계실 영역은 어디입니까?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예배가 삶을 덮는 가림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문 밖의 평생 동안 정직과 긍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오늘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정직한 선택 하나를 '예배'로 여기고 실천해 봅시다.

목요일 — '내가'가 커질 때

오늘의 말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열왕기상 8:13, 20; 요한복음 3:30)

솔로몬의 봉헌 연설에는 '내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하면서도 그 언약을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업적으로 계산하는 순간, 신앙의 몰락은 이미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 칠 년, 자기 궁전 건축 십삼 년이라는 숫자가 그의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폭로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봅시다. 자녀가 잘되면 '내가 잘 키워서', 일이 형통하면 '내 능력으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문법을 배웁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는 언제나 작아져야 하는 단어입니다.

묵상 질문

1. 최근 나의 말에서 '내가 이루었다'가 가장 자주 등장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2. 그 영역에서 '주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기도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제 입술의 '내가'를 작게 하시고 '주께서'를 크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흥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소리 내어 대답해 봅시다.

금요일 — 넘어지기 전에 예비된 길

오늘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신명기 30:1-3; 열왕기상 8:46-50)

솔로몬은 낙성식의 절정에서 뜻밖에도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관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의 인용, 곧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회복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포로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넘어지기도 전에 이미 돌아올 길을 언약 안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신실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있으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최종 확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보다 더 깊은 곳에 미리 파 두신 회복의 샘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자책의 늪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1. 지금 나에게(혹은 내 곁의 지체에게) '돌이킴'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2. 하나님이 이미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은 그 자리를 어떻게 다르게 보게 합니까?

기도

넘어지기 전에 이미 돌아올 길을 예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자책과 수치에 붙들린 저와 지체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회복이 필요한 지체 한 사람을 정해 오늘 그를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짧은 격려의 연락을 해 보시다.

토요일 —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성전 된 우리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19-21; 고린도전서 3:16)

솔로몬의 성전은 불탔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헐린 지 사흘 만에 일으켜진 성전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성전의 본래 약속은 성육신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건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성전인 우리가 함께 모여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묵상을 안고 물읍시다. 나는 건물에 예배를 두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성전으로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입니까? 내일의 예배가 다음 한 주간 삶의 예배의 출발선이 되게 합시다.

묵상 질문

1.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 이번 주 나의 언어·시간·소비 습관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2. 내일 주일예배를 위해 오늘 마음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다음 한 주간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한 걸음

내일 예배를 위해 오늘 밤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찬송가 8장을 미리 한 번 불러 보시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암송 구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한 주간 매일 묵상을 마칠 때마다 이 구절을 소리 내어 암송합시다. 토요일에는 보지 않고 암송해 봅니다.